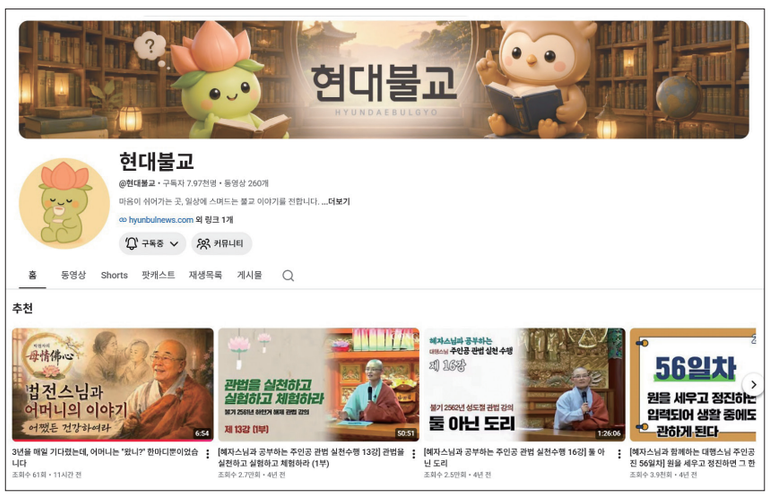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AI 콘텐츠’로 돌아왔다

7월 1일 ‘리뉴얼’ 공식 오픈
채널명 ‘현대불교’로 수정해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
자체 촬영 및 뉴스 확장 계획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리뉴얼 작업을 거쳐 재오픈한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 ‘현대불교’ 메인화면 캡쳐.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이 6개월여의 리뉴얼 작업을 거쳐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은 “7월 1일 오전 10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재오픈하고 미디어 포교 영역을 신문 지면에서 영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난해 ‘디지털미디어국’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튜브 채널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채널명을 기존 ‘스튜디오 공’에서 ‘현대불교’로 변경했다. 이는 회사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콘텐츠 구성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기존 촬영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신규 콘텐츠들은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제작된다. 또 이용자들의 시청 환경에 맞춰 롱폼과 숏폼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롱폼 콘텐츠로는 박원자 작가의 ‘모정불심’이 있다. ‘모정불심’은 지난 2021~2022년 현대불교신문에 인기리에 연재됐던 시리즈로, 스님과 재가수행자 35인의 절절한 사모곡이 담겼다. 유튜브 콘텐츠로 돌아온 ‘모정불심’은 잔잔한 내레이션과 생성형 AI로 구현한 따뜻한 삽화를 이용한 전개가 특징이다.

‘다정한 주파수’는 루틴(Routine) 콘텐츠로 잠들기 전 스스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주제를 차분한 해설을 통해 전달하며, ‘일상의 해석’은 운동 경기·운전·월요병 등 일상적인 행동들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콘텐츠다. 현대불교신문 캐릭터 IP를 활용한 ‘초심이와 해심이’는 불교사상, 역사 등 불교 상식을 재미있게 전할 예정이다.

숏폼 콘텐츠로는 △킹받는 초심이 △마음상담소 △오늘의 한마디 △롱폼 하이라이트를 선보인다. ‘킹받는 초심이’는 마지막 반전을 통한 ‘킹받는(화가 난다는 신조어로 가벼운 농담의 맥락으로도 활용됨)’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매력이다. ‘마음상담소’는 일상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짧은 AI 애니메이션을 통해 해결하는 콘텐츠이며 ‘오늘의 한마디’는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가 역주한 〈담마빠다〉의 주요 경구를 소개한다.

향후 유튜브 채널 ‘현대불교’는 뉴스부터 자체 촬영 콘텐츠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신문 지면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AI 및 뉴미디어 시대 파고를 넘어설 예정이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유튜브 채널 재오픈은 단순히 하나의 영상 플랫폼을 다시 여는 일이 아니라, 불교언론이 뉴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대중과 만나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첫 걸음”이라며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이 지면을 통해 한국불교의 현장과 사상, 수행문화를 기록해 왔다면 앞으로는 영상과 숏폼, AI 기반 콘텐츠를 통해 더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불교의 가치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불교신문은 앞으로도 불교계 현장의 목소리를 성실히 담아내는 동시에, 젊은 세대와 무종교인에게도 불교가 삶을 성찰하는 따뜻한 길잡이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실험을 이어가겠다”면서 “신문 지면이 가진 깊이와 신뢰성, 영상 콘텐츠가 가진 접근성과 확산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대와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서는 미디어 포교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명승 ‘백양사 백학봉’, 사찰 일원으로 확장

국가유산청, 확대 지정 공고
“유 · 무형유산 가치 보존돼”


백양사 대웅전에서 바라본 백학봉.

명승으로 지정된 ‘장성 백양사 백학봉’의 권역이 ‘백양사 일원’으로 확장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백암산 일대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천년고찰 백양사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명승 ‘장성 백양사 백학봉’의 지정구역을 백양사 및 산내 암자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명칭도 ‘장성 백암산 백양사 일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계절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백암산의 주변에는 천연기념물인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과 ‘장성 백양사 고불매’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백양계곡의 수달 서식지를 포함해 1500여 종의 다양하고 풍요로운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의 보고다. 과거부터 백양사 주변의 울긋불긋한 단풍 경관과 쌍계루, 백양사 대웅전에서 바라보는 백학봉의 거대한 암벽 경관은 호남의 명승지로 널리 칭송받아 왔다.

백암산에 자리한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는 고려시대 원오 국사(1215~1286)와 각진 국사(1270~1355) 등 역대 고승들이 주석한 유서 깊은 사찰이며, 고려·조선시대 문인과 학자들의 교류 장소이기도 했다. 이색의 〈쌍루기〉, 정도전의 〈정토사교루기〉 등 묵객들이 남긴 수많은 기록과 시문이 전해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현재 백양사에는 운문암, 청류암, 약사암, 천진암 등 10개의 산내 암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 암자들은 단순한 불교 수행 및 의례 공간을 넘어 고위 문관이나 학자, 유배인들까지 찾아와 학문을 닦고 유람하던 역사적·문화적 유적지다.

이외에도 스님들이 열반하면 다비의식(장례의식)을 치르는 공간인 서향암과, 한국의 사찰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찰 체험(템플스테이)이 열리는 천진암 등 각 암자에 깃든 고유의 무형유산적 가치도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이번 확대 지정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결합한 명승 ‘장성 백암산 백양사 일원’의 우수한 가치가 더욱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 7월 2일 지정예고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 함께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불법(佛法)의 수호자인 제석천을 형상화한 목조좌상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불법과 불제자의 수호자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사진〉을 비롯해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 ‘삼봉선생집 권1’, ‘안성 고신왕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은 불교미술에서 주로 불화로 그려지던 제석천상을 조각으로 조성한 흔치 않은 사례이다. 2008년 발견된 복장물의 중수 기록과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의 발원문을 통해 적어도 1645년(인조 23) 이전에 조성된 조선 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의자에 앉은 자세, 통통하고 양감 있는 얼굴, 높이 들어 올린 보계 등에서 고려 후기 양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전기 불교 조각사 연구 및 당시 복장 납입 의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은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총 100권 중 권3에 해당하는 전적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동일한 권차가 발견된 적이 없는 유일한 판본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다.

국가유산청은 “일부 보존 상태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고려시대 유식학연구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읽을 수 있도록 토를 단 석독구결(釋讀口訣)이 치밀하게 표시되어 있어 국어사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라고 지정의 이유를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삼봉선생집 권1’ 등 4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해설로 만나는 韓·泰불교미술 진수

국립중앙박물관, 7월 큐레이터 대화 진행

한국과 태국의 불교미술 진수를 큐레이터의 해설로 만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야간 개장 시간에 맞춰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에는 특별전시실과 상설전시관에서 총 20개의 해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달에는 2개의 특별전시와 함께 주제전·테마전의 전시 설명이 준비돼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에 전시 중인 ‘걷는 부처’.

가장 주목할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국내 최초로 태국 불교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의 전시 해설이다. 선사시대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태국의 역사와 미술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로,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총 4회의 전시 설명이 진행된다.

상설전시관에도 다양한 해설이 이뤄진다. 중근세관 고려실에서는 7월 8일 오후 7시 ‘고려시대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해설을 통해 국가의 근본 사상으로 기능했던 종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7월 29일 오후 7시 2층 사유의 방에서 진행될 ‘동아시아의 반가사유상’에서는 세계 속에서 바라 본 우리나라 공예 기술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볼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